

200만 촛불 항쟁... “인간띠로 청와대 포위”

26일 서울 촛불집회 신고 행진 경로



26일 광주 ‘하야하락’ 문화공연...7만명 금남로 대행진

목포·여수·순천 ‘1만 시국대회’ 등 전남 21곳 5만 집회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광주 시민 7만명이 촛불을 들고 금남로를 행진한다. 전남 21개 시·군에서도 5만개의 촛불이 밝혀진다.

전국에서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등 모두 200만여명의 국민이 ‘촛불 항쟁’에 참여, 한목소리로 ‘박 대통령 퇴진 함성’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저항행동’ 선언과 함께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비상국민행동은 이날 2차례에 걸쳐 행진을 진행하면서 ‘인간띠 잇기’를 통해 청와대를 포위하는 형상을 연출한다는 계획이다.

주최 측은 이날 서울 150만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두 200만명의 국민이 참여해 촛불을 밝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국에서 농기계를 끌고 상경 중인 농민과 동맹휴업에 나서는 대학생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국민행동은 5차 촛불집회와 함께 향후 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학생은 동맹휴업으로, 중소기업들은 휴업으로, 시민들은 창의적인 행동으로 ‘시민저항행동’을

확산해 나간다는 목표다.

같은 날 광주에서는 시민 촛불 대행진이 펼쳐진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5·18민주광장에서 모두 7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퇴진! 5차 광주 시국촛불대회’를 연다. 오후 5시부터는 ‘하야하락’을 주제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오후 6시 시국 촛불대회 이후 오후 8시30분께부터 대행진을 시작한다. 시민들은 금남공원 사거리에서 두 갈래로 나뉘져 금남로 5가 대신증권 사거리까지 행진한 뒤 5·18민주광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전남에서는 함평을 제외한 21개 시·군(23일 기준)에서 5만개의 촛불이 켜진다. 목포, 여수, 순천에서는 각각 ‘1만 시국대회’를, 각 시·군에서는 규모를 키워 촛불 집회를 열면서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에 대한 염원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23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주최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시국 촛불대회’에는 노동자, 학생 등 1500여명이 참가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우병우 ‘국정농단 목인’ 의혹

靑 민정 특별감찰반실 압수수색

검찰이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목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실을 23일 오후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검사와 수사관들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보내 감찰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별감찰반실은 청와대 내부가 아닌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다. 특별감찰반은 3층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국정청에서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감찰 인력 등이 배치된 근무한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가 공식기강을 바로 잡고자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 조직이다. 고위 공무원과 관련된 감찰 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목인·방치하거나 배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한편 우 전수석의 아들로 의경 복무 중인 우모(24) 수경이 곧 전역한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우 수경은 이날 25일 오전 의경 복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전역한다.

우 수경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해 같은 해 4월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으나 두 달여 뒤인 7월3일 이상철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경무관)의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한 뒤 자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 “대통령 체포영장...강제 수사해야”

검찰 내부 엄정수사 지지 잇따라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된 후 검찰 내부에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범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대변인이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에는 사흘 만에 현직 검사들을 비롯한 검찰 직원들의 댓글이 수십개 달렸다.

한 검사는 “아구선수, 과학자가 꿈이던 어린 시절, 외압

에 굴하지 않고 거악을 척결하던 모습에 반해 검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며 “진실을 추구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검사가 되기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이와함께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39·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23일 ‘이프로스’에 ‘박근혜 게이트’라는 주제로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현웅 법무장관·최재경 민정수석 사의 배경

대통령이 버렸다 스스로 떠나는가

靑 파국 상황 직면...거취 고민 보좌진 등 충격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것은 ‘최순실 사건’에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것에 따른 책임 차원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두 사람 모두 ‘공직자의 도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의 경우 검찰이 지난 20일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소사실을 적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범조계 주변의 얘기다. 또 최 수석은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공간과 역할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이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의 알력 다툼 때문이라는 해석도 흘러나온다. 박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놓고 최 수석이 ‘강경’ 일변도의 유 변호사와의 견을 갈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유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 수석이 무기력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이들의 사의 표명이 검찰에

대한 불만 표출이란 지적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청와대는 파국 상황에 직면했다. 청와대 내부로부터 탄핵 정국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견장을 수 없이 흔들리면서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수석비서관이나 국무위원들의 출사퇴장이 일어날지도 관심사다. 최 수석의 사의 표명은 거취를 놓고 고민하는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등 참모진에 내부적으로 상당한 충격파를 던진 분위기다.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퍼질 경우 곳곳이 자리를 지켜왔던 기존 청와대 참모들도 출구전략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아랫은 이날 두 인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독이 무너졌다”, “대통령의 검찰수사 수용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압박했다. 일부 대선주자들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집단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농도 전남’ 농업인구 급감

20년새 광주·전남 농가 39%·농업인 56%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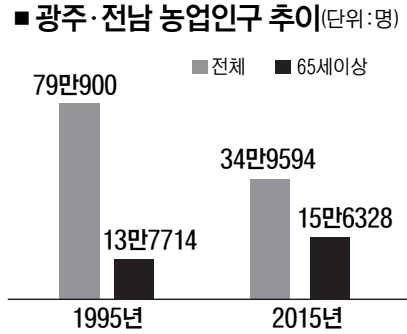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에서 농가(農家)와 농업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매년 쌀값 하락 등 농업 채산성이 떨어지는 데다 고령화까지 겹쳐 농업 부문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광주·전남 농가는 39%, 농업인구는 56%가 감소했다. 또 농가가 경작하는 농지의 면적도 지난해 기준으로 10% 가까이 줄었다.

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995년과 2015년 광주·전남 농업생산 변화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가는 1995년 26만3848가구에서 2015년 16만2177가구로 3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구는 1995년 79만900명에서 2015년 34만9594명으로 55.8% 감소했다. 농업인구는 농업을 수입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으로 농업 외 일에 종사하는 농촌인구와는 구별된다.

이는 1970~1980년대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에 이어 이농향도(離農向都) 현상이 계속된 것을 보여주는 통계다. 65세 이상 농업인구는 1995년 13만



7714명에서 2015년 15만6328명으로 13.5% 증가했다. 고령화 사회에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을 노인들이 지키고 있는 셈이다.

경지면적은 2015년 31만5060ha로 20년 전보다 9.7%(3만3948ha) 줄었다. 논 면적은 20년 동안 16.3%(3만7473ha) 감소했지만 밭 면적은 2.9%(3525ha) 늘었다.

논벼 재배면적은 2015년 17만4392ha로 20년 전보다 13.3%(2만6752ha) 감소했다. 이에따라 논벼 생산량도 2015년 89만332t으로 20년 전보다 2.0%(1만7876t) 줄었다. /김대성기자 bigkim@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중기,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등록번호: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해합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팍 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틀**

1개월 완성, 원장직강, 책임지도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 중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교정 노트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투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받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 2016. 12월 22일(목) ~ 2017년 2월 2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1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u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